



◇교계 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 김대통령은 불교계가 국민 의식 개혁에 앞장서고 복지사업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불교문화 보전은 국가사업”

김영삼대통령,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
BBS 지방국허가등 10개항 건의

김영삼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사흘 앞둔 지난 4일 오후 조계종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봉 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 9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모임에서 “불교문화의 보전 발전은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서 앞으로 계속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고 “불교계가 국민 의식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 사회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복지사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종단대표들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다”면서 사이버종교가 발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김대통령에게 △종도사·토초세 면세 △자연공인 축소 반대 △성보박물관 건립지원 △역경사업지원 △불교관계 법령 개정 △불교방송 지방국허가 등 10개항의 불교계 대정부 건의서를 문서로

비구니회 총회 개최

18일 회장선출·회관건립등 논의

전국비구니회(회장 혜춘스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제4차 비구니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신임

회장 선출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출 △지회장 선출 △비구니회관 건립 △기초선원 및 비구니율원 설립의 건 등이다. 지난일 태극 왕립불교대학 프라야마라에 다카리아 총장의 예방을 받고 두 대학간 자매결연을 논의했다. 송산스님은 학술 및 도서 교수·학생교류를 제의했으며, 다카리아 총장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공식 추진키로 했다.

불심으로 화목... ‘우리는 가족 포교사’

5월 가정의 달...불자가정 치우네 집

“친구들도 저랑 같이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많이 참석해 자랑스런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종립 은석국민학교 6학년 안치우군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 발언. 종량구 망우동 134번지 치우네가 살고있는 동네는 요즘 보기드물게 조그마한 불자타운

이웃에 ‘情나누기’ 생활화...휴가맨 성지순례

을 이루고 있다. 이 동네에서도 ‘가족 포교사’로 불리는 ‘치우네’, ‘이빠 안광룡가사(40, 삼성동화재) 엄마 김학희보살(39), 그리고 남매인 미선(동원중 1) 치우로 이루어진 가족은 여느 가족처럼 단란하고 평범한 가족이면서 포교에 열심인 ‘가족 포교사’로 소문나 있다. 불사·진목·신행단체인 ‘도솔회’의 일원이면서 은석국민학교 불자 어머니를 모임

문에 지주는 못하지만 지난해는 적멸보궁과 상원사 월정사를 참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한다. 삼성은 요즘 부처님로 테마를 잡아 사회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권하고 있다. 안광룡가사의 부서는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정했다. “물질보다도 정 보시를 하자”는 것이 그가 부하직원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또 돕는다는 배를 내기보다 마치 솜뿔 자

님, 밝은 지혜로 제가 공부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꼭 기도를 드린다는 미선은 벌써 수계를 두번 받았다. 이들 가족은 부처님 오신 날인 7일 흥안사에 들러 며칠 전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든 연등을 달았다. 엄마 김학희보살의 생각이 부처님처럼 유력 초파일이라 부처님과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고 법당에 들러 다시 한번 서원을 올렸다. (이명숙 기자)

이들 가족의 서원을 들어보자. “아이들이 자라 시간이 가면 부부가 같이 불교대학에 다녀 교리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어요.” 자광원등 어려운 복지사업을 찾아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것도 가족 포교사 치우네의 계획이다. (이명숙 기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다는 치우네 가족.

“부처님 자비로 病苦 이겨내자”

국립의료원등 병원법당 포교활성화 대책 논의

환자들을 간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병원법당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제히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3일 국립의료원을 시작으로 11일까지 현대중앙병원, 서울대학병원, 국립경향병원, 경주동국대학병원, 한국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상호협조를 이뤄갈 것을 논의했다. 포교사 연수교육 실시 조계종, 21일~내달 18일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21일부터 6월18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지역에서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사들의 자질강화와 포교활동 진력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연수교육의 대상은 신규 포교사 및 포교사중 경신자이다.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산·경남지역 5월 21일

신도조직·종교정책·불방사태

범 불교재가연대회의 3개특위 구성

범불교재가연대회의는 2일 대불련사무실에서 제1차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가연합, 전불련, 대불청등 9개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조직위상 및 목표 설정 △운영구조와 활동방향 △현 불교계 상황과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불평등 종교정책특위(위원장:김재일 조달현 유정희), 신도회구성특위(위원장:윤소년 최연 윤남진 이영철 강성식), 불교방송특위(위원장:김동근 황의수 김남수)를 결의했다. 재가연대회의는 특별법포 모임을 갖고 단체대표가 참석

‘불교와 평화...’ 국제 학술대회

하와이 대원사 6월3일~8일, 11개국 40여명 참석

하와이 대원사(주지 대원)가 주최하는 제7회 불교와 평화 국제 학술대회가 6월3일부터 8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불교와 평화, 그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11개국 학자 40여 명이 참가할 이 학술대회는 대원사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다. 대원사는 이번 학술대회의를 대규모로 열기로 하고 하와이 대학 철학과와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해 온 이 학술대회는 불교뿐 아니

민불련 창립 10주년

13일 봉은사서 법회

민중불교운동연합(의장 서동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봉은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에 이어 고은시인(본지 논설고문)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극화한 기념공연이 펼쳐진다.

외국인 노동자 위로

지난 3일 문화공연등 열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외국인 노동자 법회가 네팔등 외국인 노동자 20여명과 화계사 국제선원 외국인 스님, 외국인 노동자마을 관계자, 신도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대구시민들기 헌혈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국대 불교학생회(회장 이익수)와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상스님)는 지난 1일~3일까지 대구항사 유족 돕기위한 헌혈운동을 동국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헌혈운동에는 총4백50여명의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 헌혈기증서를 대구시에 전달했다.

무차대회 5천여노인 참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의로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무차대회’가 5천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5월 3일 탑골공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청년회와 자인봉사자 후임업체로 나선 일약약품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떡, 과자, 음료를 공양했다.

대구신도회 가족친화경연

대구광역시 신도회(회장 김향란)가 마련한 ‘제2회 가족친화경연대회’가 지난 1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개최됐다. 친화경연을 대중에 널리 보급하여 생활화하기 위한 이날 대회는 모두 15개 팀이 참가했다.

전불련 남북교류 촉구 서한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 6일 ‘남북간 불교인교류와 관련해 총무원에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통일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불련은 통일운동이 총무원을 비롯 평불협, 전불련, 실천승가회 등 모든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적 통일사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산 효행교육원 6월 착공

경기 화성 용유사 화산효행교육원(원장 정현스님)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화산 효행 교육원 자선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6월초 착공식을 갖게 될 교육원은 연건평 3천여평에 숙소와 교육동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일하는 불자들의 법회’ 창립

전지철 전교조 한국불교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노조 건설일용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의 모임인 ‘일하는 불자들의 법회(모임)’가 창립될 예정이다.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달 21일 관계자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6월3일 창립법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 모임은 노동불자들의 생활고를 함께 나누고 불교사상을 통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불출현 불서목록 무료배포

제34회 서울국제도서전이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에서 개최된다. 20개국 186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이번 도서전에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는 542번, 대원사는 739번 부스에서 불서를 전시, 판매한다. 이 기간 중 불출현은 ‘불교서적 종합목록’을 무료로 배포한다.

구독신청: 737-8881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별보급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 금화명품

살아있는 명품-팔상목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여 부처님의 위엄과 구도를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후면: 금정산인 정관 친필 반야심경
봉축특가 ₩39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봉축기념 특별선물

봉축기간에 신청하시는 불자님에게 성불 메달(관세음보살, 반야심경 양면)을 선물로 드립니다.



불교전통문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기획제작 **三田佛事**
문의처: (02)732-6095 - 6

林泉花백 불성 연화도 명품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성의 연화도! 재가불자 화백 林泉가사님의 수행 작품을 8폭 병풍으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특별보급합니다.(108점 한정)



후면: 금정산인 정관 친필 반야심경
봉축특가: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규격 및 특징

- 높이: 5자5치(167cm)
- 폭: 12자(364cm)
- 재질: 고급 스키목·스모사 고급비단

작품 규격 및 특징

- 높이: 5자5치(약167cm)
- 폭: 12자(약364cm)
- 재질: 고급스키목·스모사 고급비단

• 불교전통표구·각종 불교행사 기념품등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콜로서비스)080-023-1101 (수신자 요금부담)

• 불출현 불서목록 무료배포